# 거제 반야원 새 집에서 '새 꿈'

도성 스님과 반야원 원생들이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집들이 파티를 하고 있다.

## 내원정사 정련 스님 신축건물 선사
## 자연학습장 등 재활에 큰도움 될 것
## 요양원 건립 발원, '최고 복지타운' 소망

때아닌 폭설로 곳곳의 육로가 얼어붙었던 6일, 시원하게 뚫린 해로(海路)를 따라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이 운영하는 거제도 반야원(원장 도성)을 찾았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반야원을 들어서자마자 달려나온 정섭(14살)이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는 천사!"를 연발하며 안겨왔다. 뜻밖의 환대다. 정섭이가 이렇게 기분이 들떠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날이 바로 좁고 불편했던 철골 조립식 가건물에서 총 건평 99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새 건물로 이사를 한 날이기 때문이다. 반야원에서 살고 있는 28명의 원생들에게 넓어진 방, 새 가구, 식당 등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집들이 기념으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간단한 파티까지 하고 나니 기분이 그만이다.

이렇게 기분 좋은 아이들 뒤에는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이사장 정련 스님의 복지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내원정사가 조계종단의 권유로 치자마을을 인수하고 2002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총 31억에 달하는 공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정련 스님은 결국 생활실 12동, 집단활동실, 법당, 강당, 가정기능훈련실, 직원숙소 등 최고급 시설의 새집을 반야원 원생들에게 선사했다. 4월 10일 이전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인 반야원은 새집을 꾸밀 가전제품류, 식당용품류, 생활가구, 사무용품 등을 후원 받고 있다.

신축 건물에 입주를 시작한 반야원은 2003년 6월 교계 최초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추가 승인을 받아 중증 장애인 80명, 생활시설 30명 등 총 인원이 110명으로 늘어난다. 반야원 신축으로 음악치료, 도예, 목공 등 각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으며 운동장, 산책로, 야외학습장 등의 부대시설은 가족단위의 일반인들에게도 체험 학습장으로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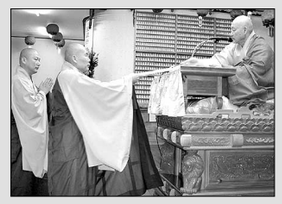
특히 5천 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원예치료 등 장애인 재활과 자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장 도성 스님은 주민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마련하고 불교와 사회복지, 복지현장 실무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내원은 2004년 4월부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착공해 2005년 6월경 준공할 예정이며 장기 계획으로 노인요양원 건립까지 발원하고 있어 '거제 최고의 복지타운'을 내다보고 있다.

원장을 맡은 도성 스님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불자님들이 아쉽다"며 "청소, 목욕, 빨래 등의 봉사와 후원자 관리 등 행정업무 자원봉사 등에서 봉사할 스님, 거사님, 보살님 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원봉사 동참을 호소했다. (055)632-1854

거제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성파 스님, 우학·효범 스님에게 전강



우학 스님이 성파 스님으로부터 전강게를 받고 있다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 무위선원장)이 우학 스님(영남불교대학 회주)과 효범 스님(교육원 교육국장)에게 강맥을 전하는 전법 전강식이 3월 11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어받고 통도사 주지 원효학원 이사장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한 성파 스님은 이날 우학 스님과 효범 스님에게 화엄경 경전과 전강게를 내림으로서 강맥을 잇는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췄음을 대중에게 밝혔다.

전강을 받은 우학 스님은 전통강원을 열고 학인스님 교육에 매진할 계획을 밝히며, "장차 관음사를 승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종합수행도량의 모습을 갖춘 도심사찰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불국토 '상락정 배산 실버빌' 착공

### 2005년 3월 완공 예정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는 3월 10일 실비 노인요양원 '상락정(常樂精) 배산 실버빌' 착공식을 가졌다.

영주암 원통보전 바로 뒤 1천 평 부지에서 거행된 착공식(사진)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 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스님,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노인 복지를 위해 땅을 희사해주신 정관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국토의 모든 복지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여생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연면적 445평 규모로 건립되며 2005년 3월 경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 부산여불회 창립 10주년 법회
### 3백여명 참가 13명에 장학금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가 3월 1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여성불자회는 천혜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 정재선(서울대 인문대학 1)씨 등 13명에게 총 5백 3십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천미희 기자

### 늘기쁜마을 '환희복지대' 개강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3월 10일 당리동 관음사에서 제12기 환희복지대학(학장 지현) 개강식을 가졌다.

복지보건대학의 불심봉사단으로 활동해오던 환희복지대학은 올해부터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을 학장으로 추대하고 기존의 복지보건대학을 환희복지대학으로, 봉사단은 환희봉사단으로 개명했다. 천미희 기자

### 영남불교대 칠곡법당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3월 10일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 칠곡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개원법회에서 회주 우학 스님은 "원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참 불자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며, 광명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법문했다. (053) 312-8221 배지선 기자

### 대구 대승불교대 2기 입학식

대구 송현동 대승불교대학 범음범패 의식교육원(학장 원통)은 3월 11일 스님과 사부대중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구반 및 제2기 수련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배지선 기자

## 지율 스님, 고속철 벌목 현장으로

지율 스님이 경부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현장을 찾아 가부좌를 틀고 천성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환경 무시 용납할 수 없다"
### 천성산 수호대 발족 준비

지율 스님은 3월 10일 오후 1시, 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벌목 공사가 진행 중인 법기리 개곡마을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잘려진 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과 마주 보는 두 산 여기저기에 잘려진 채로 흩어져 있는 나무들이었다. 스님은 곧장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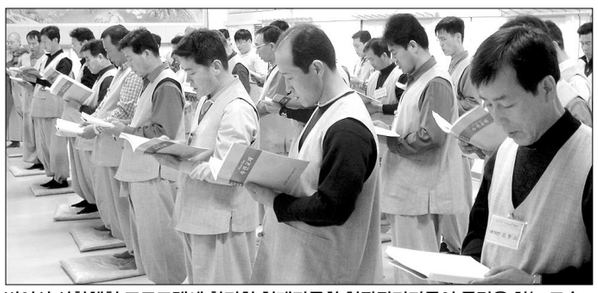
지율 스님과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는 '고속철도는 도롱뇽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7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와 전통사찰 경내지 통과에 따른 법적 수순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 강행에 맞설 예정이다.

천성산비상대책위는 10일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부실한 영향평가를 담당했던 동아대 환경연구소와 유신코프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 현장 사수를 위한 도롱뇽 소송인단 전국 연대 활성화, 천성산 수호를 위한 1000인 수호대 발족을 서두르게 된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 울산 현대자동차, 사찰문화 체험



범어사 사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현대자동차 현장관리자들이 독경을 하는 모습.

### 현장관리자 50명 범어사서
### 예불, 염주만들기 108배 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관리자들이 1박 2일 동안의 범어사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 근무 중인 반장급 이상 현장관리자 50명은 3월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사찰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은 저녁 · 새벽 예불, 108배, 108 염주 만들기, 불교무예 · 불무도 배우기를 비롯해 '올바른 가족관과 직장관'에 대한 법문과 참선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4월초까지 5차에 걸쳐 2백명의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이효성 씨는 "현장에 직접 필요한 교육에 치중해 오던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범어사를 택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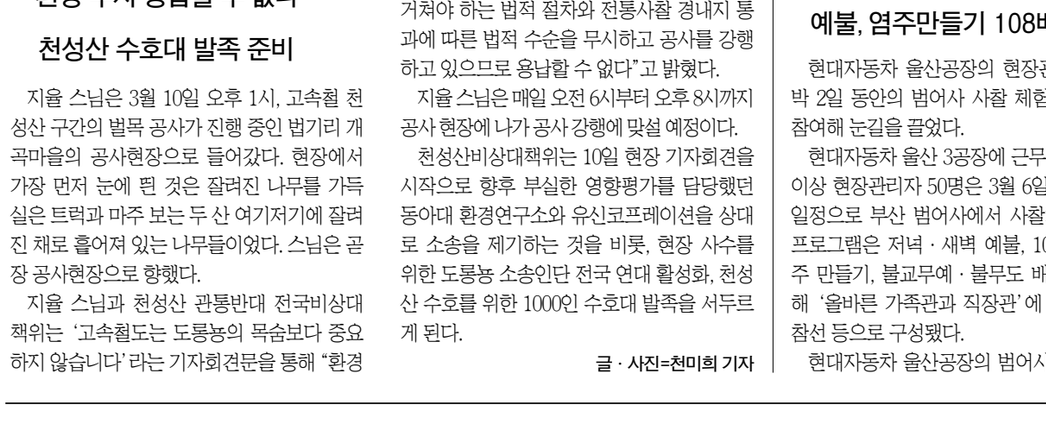
종교적인 문제로 우려를 했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염주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다"등 1박 2일 동안의 범어사 생활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효성 씨는 "임원들은 물론 생산라인의 반장, 기사, 주임 등 현장관리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어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착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태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꿩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꿩 방생 장소**로 최적지 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